

2 주 - 감사함

2 주 - 1 일 - 감사함의 중요성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골. 4: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기도와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추고, 또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생생하게 된다. 기도란 전선을 연결하는 것 같고, 감사는 빛을 내는 등과 같다. 때때로 우리의 전선이 연결되어도 우리에게 반응이 없을 때가 있다. 빛은 기도만 있고 감사가 없을 때 빛발함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생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 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와 감사를 드릴 때, 즉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거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항상 나오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한다.

많은 기도를 항상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감사가 없이 구하기만 한다는 것은 비 논리적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하였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단지 동의만해도 감사를 드린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관심하심을 압니다.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 후에 감사하지 말고, 응답받기 전에 감사해야한다. 우리 안에 평간의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한다.

빌 4:6 에서 바울이 단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와 간구는 감사와 함께 주님에게 드려져야한다. 최근 나는 다시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공과를 배웠다. 내가 주님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감을 가진적이 있다. 아플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아직도 이 정도의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아파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건강하지는 않으니, 건강을 개선시켜 온전히 낮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한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하며, 게으르지 말아야한다. 그러한 깨어있음이 감사와 함께 있어야한다. 감사가 부족한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기도생활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이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한다. (골 4:2)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한다. 우리는 계속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주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어느 형제가 부인과 다툴 수 있겠는가? 절대 다툴수 없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이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기도 안에 머문다면, 당신은 항상 주님께 감사를 할 것이며 이 감사가 또한 당신을 기도생활 안에 지켜줄 것이다.

골 4:2 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한다. 대적은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멈추게 할수 없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음에 의해 유지된다.

2 주 - 2 일 -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함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살전 5:16-18a 항상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골 3:17 과 살전 5: 18 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한다. 이는 실로 모든 것 - 큰 것, 작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철로공사를 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기차가 지나가 그의 다리가 잘려버렸다. 병원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어떠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어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다리가 없어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아직 있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어조이다. 승리의 어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감사와 찬양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러져, 그 분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단지 고난을 참는 것에 만족치 말라. 성경에서 묘사하는 고난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다. 골 1:11 은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고난에 대해 강건하다고 말한다. 승리하는 인내는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품은자들만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모든 신약의 믿는이들은 요셉들이다. 당신은 자신이 요셉이라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요셉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믿는이들인 이상 당신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다. 당신이 요셉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다. 하늘, 땅, 비, 눈, 이슬, 이 모든 하늘아래 있는 것이 다 축복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과연 그런 자녀들로 감사해 본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신에게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다면, 당신은 “주여, 이 자녀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듣고 속 썩이는 아이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감사해야한다. 그런 아이들이 르우벤의 상태로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이 저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주님을 믿으면, 그들은 다른 요셉들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신약의 믿는이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를 알게될 것이다. 우리는 우주적인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이들을 저주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이들을 축복할 수 밖에 없다. 설령 다른이들이 우리에게 나쁜게 대해서도, 그 나쁜 일도 축복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를 돌리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 “나를 미워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그 또한 나에게 축복입니다. 어느 상황이라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서도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나에게 잘못 대해서도 당신을 여전히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야한다. 우리가 축복받은 이들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본다면 당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천연적이 방법으로 말한다. 무엇을 좀 얻으면, 주님께 감사하지만, 무엇을 좀 잃으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우리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좋건 나쁘건, 우리는 말해야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2주 3일 -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림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

살전 5: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엡 5:20 항상 모든일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성경 전체에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으로서 말할수 없는 분량의 빛을 표면 아래 갖고 있다. 신약의 스물 일곱 권의 책 중에서 단지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세 책 만이 모든 일에 감사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세권의 책은 모두 사도바울에 의하여 쓰여졌고 이러한 책의 순서는 비밀스럽고 놀랍다.

첫 책인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합당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해준다. 두번째 책은 골로새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생활이다. 세번째 책인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자매책으로서 교회와 교회를 체험함에 대하여 끝부분에서 말한다. 우리는 영안에 있을 때에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이러한 교회 생활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거나 교회 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 각각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언급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단계로 되어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과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인 몸을 체험하는 생활이다. 모든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생활에서 단절될 때 기형적으로 변질된다

내가 구원 받은 처음 십년 동안의 나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의 삶이었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배우기 원하였고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매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기위해 준비했었다. 이것이 초기의 단계에서의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내가 점차적으로 진보하면서 나는 성경을 공부했고 속생명에 관한 서적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적인 생명으로 알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깊은 방식으로 체험한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교회의 간증을 위한 것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며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장 깊은 그리스도인의 단계이다. 이 모든 단계의 삶은 모두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된다. 기도와 감사는 양 다리와 같다. 한 다리 만 가지고 걸을 수 없다. 감사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 기도없는 감사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감사도 드려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한다. 어떤 것이 선행 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순조롭게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할 때 우리는 그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를 드리도록 가르쳐야한다.

당신이 영적인 노정을 걸을 때 당신은 오른발을 먼저 떼어야 하는지 왼발을 먼저 떼어야 하는지 묻지말라. 나는 오늘 날 까지도 내가 걸을 때 오른발을 먼저 딛는지 왼발을 먼저 딛는지 알지못한다. 당신이 어떤 발을 먼저 떼어야 할지를 의식한다면 당신은 걷는 것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해야하며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걸어야 한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고 후에 기도한다.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발이다. 하나의 다리가 없다면 걷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양발이 다 없다면 걷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된다.

2주 4일 - 감사와 찬양은 승리의 소리임

벤전 4:12-13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 하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 5:11-12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하십시오...

어떤 형제들은 시험이 올때 그들의 눈썹을 치켜뜬다. 그들은 불평하며 “아이구 또 왔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온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한다면 우리는 시험 그 위에 서있게 된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시험과 환경과 어려움 위에 있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승리에 대한 합당한 음조인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 안에서 표현된다. 치푸에서 이기는 체험을 하게된 한 자매는 극한 환란에 처해 있었다. 그녀의 딸이 몇 시간 안에 사망 했고 그녀의 남편은 먼 곳에 있었다. 그 딸이 죽은 후 형제 자매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내가 아이의 죽음을 이해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녀가 그들을 위로 하였다. 이러한 기쁨은 조작할 수 없다. 승리는 이러한 음조로 유지된다. 환란의 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받기 어려운 말을 하도록 허락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 위에 다른 사람의 본으로 두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과 같이 울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다른이들과 다를 바가 없게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힘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마 실성한 사람과 같이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실성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굶주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사 우리가 환란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시기를 바란다

마태 5:11-12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이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견뎌낸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항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견디고 항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다만 견디고 항변하지 않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세상도 참고 항변하지 않을 수 있다. 중들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유교의 학자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즐거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핍박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기쁜일로 여겨야 한다. 우리의 승리가 참되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높여져야 한다. 승리가 다만 핍박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다. 사람의 일은 억눌림으로 끝나게 되지만 주님의 일은 모두 기쁨과 높여짐으로 끝난다.

오늘날 가장 큰 실수는 견디는 것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여기는데 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핍박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바닥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을 다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 많은 자매들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비방과 거짓을 체험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여 그들이 성질을 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 그들은 그들이 성질을 내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다면 승리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승리한 것인가? 그들이 승리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승리는 아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승리라면 그들은 반대받고 핍박받는 중에 주님께 크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승리의 음정은 감사함과 찬양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승리의 음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정복 보다 높지 않은 승리는 다만 승리를 흉내낸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자신을 억누르고 씨름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2 주 - 5 일 - 감사함으로 삼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을 누리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6 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나,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분은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 밖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신성한 생명이 부족한 것, 이기는 생명을 살지 않는 것, 그 영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 등 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간청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요청이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했던 것을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한 결과는 빌립보서 4 장 7 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실 것입니다.” (빌 4:7)

삼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 그 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 분이 풍성한 공급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 분이 당신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당신은 그 분안에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그 분안에 있지 않으면 그 분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공급과 부활 생명이 당신의 누림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이 당신 안에 운행하고 계실지라도, 그 분께 협력하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가장 최상의 표현은 기도이다. 합당한 기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운행하시어 당신의 속사람을 보호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그 분의 평강과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 분은 풍성한 공급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분께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 분은 우리를 외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을 누리다. 이러한 누림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확대되고 있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이 만유를 포함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부요한 그 영이시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든 나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나 자신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이나 주님 밖의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삼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과 협력하여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내 안에 있는 당신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더욱,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하여 내가 원하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이기는 것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당신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며, 즉시 당신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지지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림이다. 이러한 누림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온종일 기도의 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기도의 영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삼일 하나님- 그 영이신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그 분 존재의 모든 것,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다. 지금 우리는 그 분과 협력하고 그 분께 순종하고 그 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고, 더욱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영으로 그 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을 생명과 평강으로 누릴 것이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의 누림이다. (발췌: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체험 9 장 4 과)

2 주차 - 6 일 - 떡 때는 집회안에서 감사 드리는 장소

마태복음 26:27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1:24-25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새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회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성취하신 은혜의 일들을 위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미덕들이라면, 우리의 감사함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의 일들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0 장과 11 장에서, 성경은 떡때는 집회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들을 언급한다. 11 장 24 절에서 바울이 떡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주님의 육체의 몸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이 구절에서의 기본사상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7 은 또 다른 관점을 이렇게 보여준다.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11 장에서의 떡은 주님의 육체의 몸을 의미하지만, 10 장에서의 떡은 우리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11 장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10 장은 하나님의 자녀들간의 우리의 교통을 강조하고 있다. 떡을 떼는 집회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구원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떡때는 집회 또한 두 부분이 있는 것이다. 떡을 떼기 이전에, 우리는 그 아들을 기념한다. 떡을 떼 후에는, 우리는 그 아버지께 관심을 돌린다. 떡을 떼기 전의 방면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떡을 떼 후의 방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올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의 아들들이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왔다. 어떻게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왔다. 따라서, 떡을 떼는 집회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함과 찬양들은 모두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 올때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감사드림과 찬양들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집회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실 것을 여쭙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다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감사함은 주님의 행하심 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주님 자신을 초점 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그분의 어떠하심에 관하여 찬양 하는 것이다. 초반에는 감사함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찬양한다. 우리는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심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함을 드린 후에, 우리는 찬양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찬양이 최고봉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때가 떡을 떼는 시기인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우리가 떡을 떼 후에 시작된다.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 분께 나와 오는 것으로 멈춰 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은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확실해야 한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 들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 들여졌다.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긴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방면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분은 그 아들이시고, 이것은 한 부분이다. 우리를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나머지 다른 한 부분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떡을 떤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떡 떤 집회의 두 번째 부분인 것이다. 이 집회의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Nee, *Message for Building Up New Believers*, Vol. 1, Chapter 14, Section 3)